

북스

Books

부의 변화 '제4의 물질' 온다

부의 미래 앨빈 토플러 지음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사진)가 '권력이동' 이후 15년 만에 새 책 '부의 미래'(원제 Revolutionary Wealth·혁명적 부)를 내놓았다.

'미래 쇼크', '제3의 물질' 등의 미래학 저작을 통해 지식사회의 도래를 일찌감치 예견했던 저자가 이번에는 부(富)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부는 보이는 부와 보이지 않는 부 모두를 포함한다. 화폐 경제와 비화폐 경제를 총칭하는 것이다. 또한 부는 절대적인 필요에서 일시적인 요구까지 모든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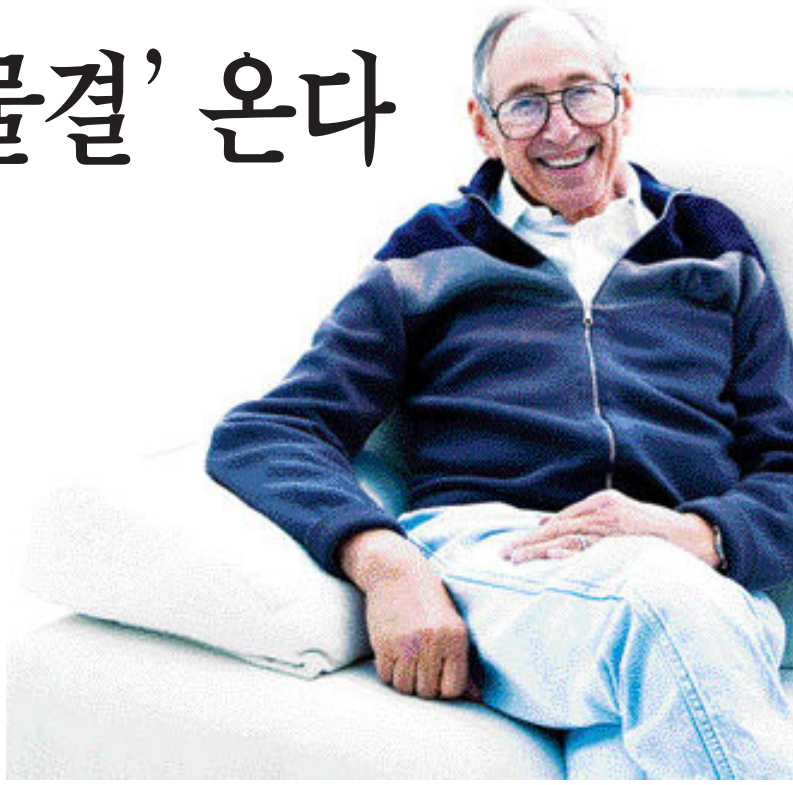
새로운 문명(일명 '제4의 물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폐 경제와 비화폐 경제 사이에서 상호 작용하는 부의 창출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에 따르면 인류가 만들어낸 첫번째 부 창출 시스템은 씨앗의 발견이다. 농업을 발명하면

서 인간은 자연을 활용하게 됐다. 두번째 부 창출 시스템은 산업주의로, 계몽주의 등 새로운 사상과 함께 싹튼 제2의 물질은 공장, 도시화, 세속주의 등을 가져왔다. 가장 최근에 발견한 세번째 부 창출 시스템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지식사회에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과 IT로 대표되는 이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저자는 부의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로, 시간·공간·지식을 내세운다. 이들 삼축 기반은 어떤 경제 체제에서나 상관없이 모든 문화와 문명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발전 단계에

급변하는 사회 부창출 시스템 그려

중요한 것들이다. 그는 또 화폐 경제와 함께 비화폐 경제에서 프로슈머(producer(생산자)+consumer(소비자)·제품 개발을 할 때에 소비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 경제가 촉발에 가까운 급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한다. 새로운 부 창출 시스템의 완성을 위해서는 비교적 저평가되고 있는 프로슈머의 경제적 가치를 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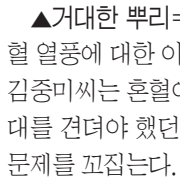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여러 사례들을 통해 프로슈머가 시장과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저자가 그리는 미래는 낙관적이다. 다가올 사회는 현재와는 혁명적인 차이를 보이는 질서와 제도,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실현 가능한 긍정적 미래다. "미지의 21세기에 들어온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환영한다"는 책의 마지막 구절이 이를 뒷받침한다.

저자는 미래의 경제와 사회가 형태를 갖춰감에 따라 우리 모두는 미래로 뛰어드는 가장 격렬하고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한 번 살아볼 가치가 있는 환상적인 순간'이라고 말한다. 책은 10개의 큰 주제와 50개의 작은 주제로 나뉘어져 있다. 100쪽에 가까운 주석과 참고서적 목록은 경제·사회학 뿐 아니라 물리·의학 등 과학의 영역까지도 섭렵한 저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정림출판·1만9천800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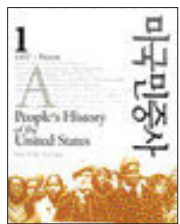
▲90년대를 빛낸 명반 50=PC통신 나무누리 대중음악 감상·비평 동호회 '뮤즈(MUSE)'출신 저자들이 한국 대중음악의 절정기였던 90년대를 돌아본다. 신승훈, 신해철, 이승환 등 90년대 인기가수들의 음반을 비평한다. <한울·1만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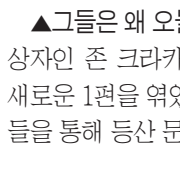
▲거대한 뿌리=하인스 워드라는 키워드가 가져온 한국의 혼혈 열풍에 대한 이면을 살펴본 소설. '팬이부리달 아이들'의 작가 김중미씨는 혼혈아 재민이를 통해 가족에게 버림받고 사회의 냉대를 견뎌야 했던 동두천 기지촌 이야기와 이주 노동자, 코시안 문제를 꼬집는다. <검동소·9천원>



▲제인스프링 다이어리='소퍼홀릭'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읽는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소설이다. 작가 서문 크랩은 서른네 살 싱글 여성인 뉴욕 지방검사보 제인 스프링이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쾌하게 그려냈다. <노블마인·9천원>



▲미국 민중사=노엄 촘스키와 함께 실천적 지식인으로 불리는 하워드 진의 대표작이다.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때부터 2000년 '테러와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민중이라는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통해 미국을 들여다 본다. <시울·2만4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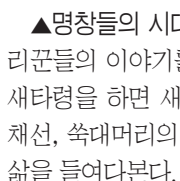
▲그들은 왜 오늘날 산과 싸우는가=전미산악연맹문학상의 수상자인 존 크라키우어가 그동안 잡지에 기고했던 11편의 글과 새로운 1편을 엮었다. 등반에 대한 사실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등산 문화와 발산 등반가들을 소개한다. <자음과모음·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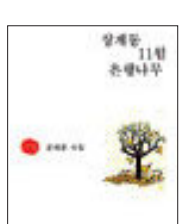
▲2천 년을 이어온 논쟁=테마로 읽는 고전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고전연구회가 중국 고전의 이해에 반드시 필요한 유가·묵가의 논쟁, 개학·수구의 논쟁, 성선설·성악설 논쟁 등 역사의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논쟁을 묶었다. <포럼·1만2천원>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힘, 욕망을 부추기고 실현하며 현대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식은 소비라고 주장하는 박정자 교수가 소비사회를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분석한다. 광고와 유행 등 다양한 키워드로 쉽게 풀어냈다. <기파랑·1만2천원>



▲명창들의 시대=한국의 음악 문화를 풍부하게 만들었던 소리꾼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한국광명대 국어과 윤석달 교수는 새타령을 하면 새가 날아들었다는 이날치, 최초의 여류명창 진채선, 숙대머리의 명창 임방울등 판소리 300년사와 소리꾼들의 삶을 들여다본다. <작가정신·1만2천원>



▲상계동 11월 은행나무='바닷가 사람들' 이후 십년만에 선보이는 강세환의 세번째 시집이다. 자신이 외면한 외국인 노동자, 고단한 삶을 사는 때밀이 남자 등 우리 사회에 이해와 연민의 시선을 보낸다. 평범한 소재, 소박한 글이지만 사회를 향한 배려가 묻어난다. <시와에세이·8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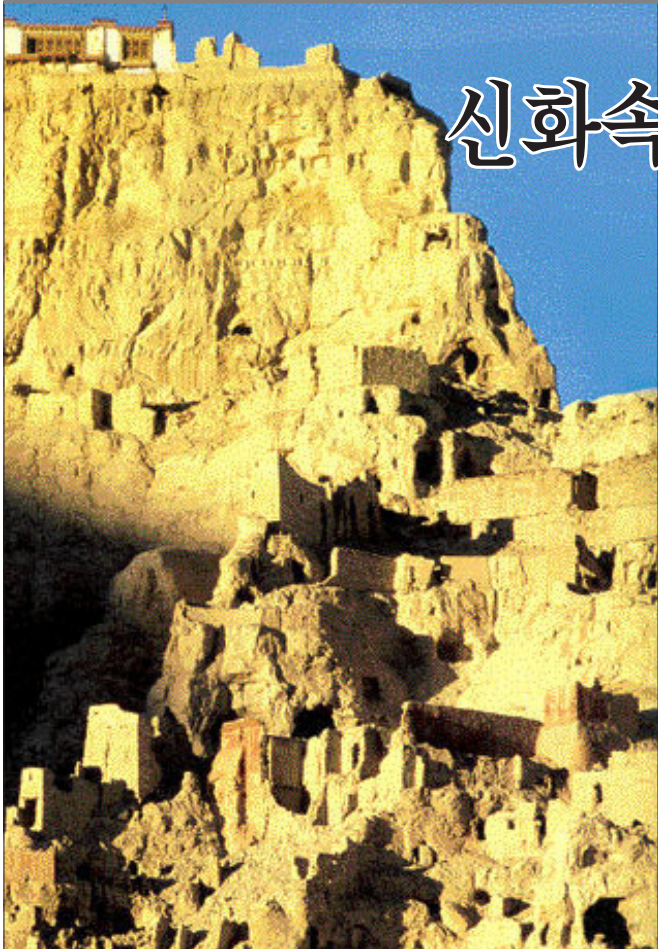
인명·지명 통해 본 유럽의 문화와 역사



사람의 이름과 땅의 이름에는 지은이의 숨은 뜻이 숨겨져 있다. '개풍이'라는 이름에 역마의 의미가, '광주'에 빛고을의 의미가 있다.

일본인 학자 우메다 오사무가 쓴 '뿌리깊은 인명 이야기'와 '뿌리깊은 지명 이야기'는 서양, 특히 유럽의 '이름'을 키워드로 옛 유럽의 문화와 역사의 뿌리를 더듬고 있다.

저자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위해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스노리의 '에다', 타키투스의 '역사',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등 그리스·로마 신화는 물론 에드가 앨런 포의 시까지 동원한다. 옛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 듯한 저자의 친절한 설명에 평소 자주 접해왔던 서양식 이름들에 대한 궁금증이 짝 사라진다. <파피에·인명 1만원, 지명 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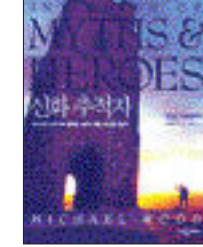


신화속에 숨겨진 역사의 미스터리

신화 추적자 마이클 우드 지음

신화는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를 담은 화석이다. 신화가 현재까지 깊은 울림을 전하는 것은 고대인의 삶과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코드'라는 점이다.

영국 BBC의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마이클 우드(Michael Wood)가 쓴 '신화추적자'는 현장답사와 역사적 고증을 통해 신화를 재구성한 책이다. 저자는 서구문화를 가장 잘 반영한 '상그리라', '아르고호 원정대', '시바의 여왕', '아더 왕 이야기' 등 4가지 신화를 선정, 다큐멘터리 특유의 기법으로 추적한다. 제임스 힐튼의 소설 '잃어버린 지평선'(1933)에서 '낙원'으로 묘사된 '상그리라'는 서구인들이 사로잡은 현대적 신화다. '상그리라'는 티베트 신화에 등장하는 '지상낙원'이다. 저자는 상그리라로 알려진 인도 구계 왕국의 수도 차과랑으로 발길을 옮긴 뒤 이방인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인접국가 라다크의 공격을 받고 폐허로 변한 현장을 발견한다. 이 과정에서 상그리라는 그리스도교의 동양선교 과정을 반영한 이야기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왕위의 상징인 황금 양털 가죽을 얻기 위해 '해뜨는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아르고호 원정대'는 그리스의 식민지 건설 과정에서 드러난 문명간의 충돌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저자는 '아르고호 원정대'에 등장하는 황금 양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황금이 나는 강'과 체체니아의 희생제의를 찾아 여정을 떠난다. 구약성서와 코란에 등장하는 '시바의 여왕'은 향료와 철기 시대의 황해술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재해석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농기계는 구입처를 잘 선택하셔야 후회 없습니다.

피도키

신승형농기, 유진모토기, 유진삼승기, 대우농기, 동계농기

062) 433-3400

한아상공

수입농기계, 고농농기계, 트랙터, 농수기, 트랙터, 트랙터, 트랙터, 트랙터

자신의 환경을 위한

세심합 속에는 신우 **환기유니트**

Airpass 있습니다

신우환기유니트

신우환기유니트